2023. 5. 31.(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3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홍보실장	김정환	6311-9400
홍보팀장	이현우	6311-9401
담당자	김병철	6311-9409
관련 누리집	http://www.seoulmetro.co.kr http://www.smiff.kr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5쪽

일상 속 210초의 미학, 나도 지하철 영화제에 출품해볼까?

- 서울교통공사, 5월 31일~7월 7일까지 제14회 국제지하철영화제 작품 공모
- 기존 90초에서 210초 작품 분량 확대로 공모 조건 개선
- 총상금 1,100만원 상당에 수상작을 포함한 우수작품들은 해외에서도 상영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과 초단편영화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제14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Seoul Metro International Film Festival(SMIFF), 이하 국제지하철영화제)」출품작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기간은 5월 31일부터 7월 7일까지다.

□ 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하는 국제지하철영화제는 공사와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위원장 민병록)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신한카드가 후원사로 참여하며 바르셀로나 지하철 영화제(Subtravelling) 및 코펜하겐 단편영화제(60Seconds)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작년(제13회)은 국내경쟁 부문 ‘발자취(서란, 이승빈 감독)’ 국제경쟁 부분 ‘샌드맨(아멜리에 프레보. 마리옹 크리스트만 감독)’, ESG특별상 부문 ‘온도조절자(아서 진로이, 데미안 바비키언 감독)’ 등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올해부터 모든 출품작의 분량이 기존 90초에서 210초로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90초는 보통 지하철이 한 정거장을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그 사이에 초단편영화 1편을 관람해보자는 취지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짧은 분량 탓에 작품을 연출함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상영작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더욱 다양한 작품이 공모에 출품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화제 공모 부문은 국제·국내경쟁과 ESG 특별경쟁으로 나뉜다. 국제·국내경쟁 부문은 주제의 제한이 없으나, ESG 특별경쟁 부문은 환경을 주제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공모한다. 출품작은 지하철 내 상영을 위해 소리 없이 영상만으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이어야 한다.**

○ ESG 특별경쟁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기업경영 철학과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신한카드의 지향점이 합치되어 ’22년에 신설된 부문이다.

○ 온라인 출품사이트 필름프리웨이(http://www.filmfreeway.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올해에도 그동안 공사가 시행해왔던 ‘E-CUT 감독을 위하여’(단편영화 제작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6월 중 신인 감독들을 대상으로 단편영화 시나리오를 공개 모집하고, 선정된 감독은 제작지원금을 받아 10분 분량의 단편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작품에는 신진 배우 김주아가 재능기부로 참여할 예정이다.**

○ 영화제 참가나 시나리오 접수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 누리집(www.smif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화제 출품을 위해 공사 관할 지하철 시설물 내에서 작품 촬영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실제 촬영일로부터 최소 4일 전)**에 공사 담당자에게 촬영신청을 해야 한다.**

○ 차량기지 및 평일 출퇴근 시간대(07~09시 · 18~20시) 촬영은 불가하며 촬영을 위해 운임 지역 출입 시 전원이 운임을 지불 해야 한다.

□ **공사는 영화제 프로그래머 · 영화평론가 등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과한 본선 진출작 45편**(국제경쟁 20편, 국내경쟁 15편, ESG특별 10편)**을 선정해 8월 1일(화) 영화제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명단	
손광수	SMIFF 프로그래머
노진수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아다 카마라	코펜하겐 영화제 디렉터
나원정	중앙일보 기자
아르겔리치	바르셀로나 영화제 프로그래머

□ **본선에 진출한 작품들은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영화제 기간 동안 지하철 행선안내게시기와 역사 내 상영 모니터, 영화제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 지하철 역사 내 미디어보드 상영 및 을지로3가역에 조성된 ESG상영관('22년)

□ **최종 수상작 6편은 영화제 누리집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관객투표 등으로 결정된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1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바르셀로나 지하철영화제와 덴마크 코펜하겐 단편영화제에서도 상영된다.**

부문	시상	상금 및 상품	심사기준	비고
국내	대 상	상금 200만 원+@	관객심사 100%	@(200만 원 상당의 항공·숙박권)
	우수상	상금 100만 원	관객심사 100%	
	관객상	상금 100만 원	영화관 현장 방문 관객투표	
국제	대 상	상금 200만 원	관객심사 100%	
	우수상	상금 100만 원	관객심사 100%	
특별	ESG특별상	상금 200만 원	관객심사 50%, 전문가 심사 50%	

▲ 제14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 시상 내역 및 심사기준

□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국제지하철영화제는 발전을 거듭하며 어느새 14회를 맞이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영화 교류의 장이다.”라며, “그간 참신한 작품으로 지하철 이용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이번 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14회 국제지하철영화제 공모 포스터